

우리나라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담배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공의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담배는 자신의 몸에만 나쁜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의 몸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담배를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 흡연자 가까이 오면 담배 냄새가 코를 찔러 기분이 안좋아 집니다. 또한 담배꽁초와 담배재도 싫습니다. 흡연이 청소하는 사람들을 괴롭힌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누구나 담배 피울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권리는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서만 유효합니다.

권리에는 항상 책임이 뒤따르는 법입니다. 담배피는 것이 가능한 장소가 점점 줄어드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입니다. 담배는 특히 아이들과 임산부에게 해롭습니다. 공공의 장소에서 맘대로 흡연하는 것은 이런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규칙을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